

## ‘MLB 히어로’ 류현진

이주의 선수상 선정...한국선수 5번째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생애 처음이자 한국 선수로는 5번째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이주의 선수상’을 받았다.

류현진의 활약과 관련,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미국 베테랑 야구 칼럼니스트 피터 개먼스는 류현진 호투의 비결로 ‘기능적 운동신경’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14일 5월 둘째 주 이주의 선수로 내셔널리그 류현진, 아메리칸리그 마이키 파이어스(오를랜드 애슬레틱스), 조지 스프링어(휴스턴 애스트로스)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올 시즌 다저스 선수가 이상을 받은 건 4월 첫째 주 코디 벨런저 이후 두 번째다.

류현진에 앞서 역대 한국인 메이저리거 중 이 상을 받은 선수는 박찬호(당시 다저스-내셔널리그), 김병현(당시 애리조

나 다이아몬드백스-내셔널리그),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 강정호(피츠버그 파이어츠)다.

한편, 야구 칼럼니스트 피터 개먼스는 14일(한국시간) 현지 매체 디 애슬레틱을 통해 ‘류현진과 기능적 운동신경’이라는 장문의 칼럼을 소개했다.

그는 “류현진은 기능적 운동신경이 좋은 것”이라며 “단순히 뛰고, 점프하는 등의 운동신경과는 다른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류현진은 부드러운 투구폼으로 비슷한 구위의 공을 100개 이상을 꾸준히 던지는데, 이런 점이 바로 기능적 운동신경”이라고 전했다.

그는 비슷한 유형의 선수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최고의 좌완투수 C.C.사바시아(은퇴)를 꼽기도 했다. /연합뉴스



## ‘도전의 아이콘’ 최경주

내일부터 인천 KPGA SK텔레콤오픈 출전...최다승 도전

‘탱크’ 최경주(49)는 지난해 체중을 10kg 넘게 줄였다. ‘새 출발’을 위해 몸에 군살을 다 빼기로 결심하고 혹독한 다이어트를 감행했다.

몸 만들기 과정에서 갑상선에 종양이 발견돼 떼어내는 수술까지 받았다.

최경주는 지난해 미국프로골프(PGA)투어 RBC 헤리티지에서 공동 10위에 올라 13개월만의 톱10 입상으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았다.

최경주는 “몸이 더 유연해지고 근육이 많아진 덕에 비거리가 20야드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괴롭혔던 알 수 없는 통증과 이에 따른 어색한 보상 동작이 없어지면서 스윙이 깔끔해졌다.

최경주가 16일부터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 하늘코스(파71)에서 열리는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

안투어 SK텔레콤오픈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까닭이다.

SK텔레콤오픈은 최경주에게는 ‘안방’이나 다름없다.

작년까지 22차례 열린 SK텔레콤오픈에 18차례 출전해 최다 출전 기록을 갖고 있다. 최다 우승 기록도 최경주 몫이다. 2003년, 2005년, 그리고 2008년에 이 대회 정상에 올랐다. 게다가 SK텔레콤은 최경주의 메인 스폰서다.

2012년 CJ 인비테이셔널 이후 멈춘 최경주의 우승 시계를 다시 돌려 부활을 알리기에는 딱 맞는 대회다.

지난 12일 귀국해 13일 주니어 선수와 멘토링 라운드, 14일 연습 라운드에서 이어 15일 프로암까지 사흘 동안 코스를 돌아본 최경주는 “샷이나 몸 상태가 다 괜찮아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새 외국인 타자 터커·투수 강이준 ‘반전카드’



터커, 휴일에도 타격...실전대비 맹훈련 관계자들 “스윙스피드 빠르고 타구질 좋다” 강, 두산전 피칭 합격점...마운드 쇠신 기대

KIA 타이거즈가 새로운 외국인 타자 프레스턴 터커와 ‘강심장’ 투수 강이준을 반전카드로 쓴다.

‘호랑이 군단’은 올 시즌 투·타 불균형 때문에 최하위 싸움을 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선수들의 부진이 아쉬웠던 봄날이다.

KIA는 2019시즌을 맞으면서 외국인 선수 3명을 모두 교체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새 외국인 투수 윌랜드와 터너는 17차례 등판에서 4승을 합작하는 데 그쳤고, 외야수 해즐베이커는 11경기 출장 기록만 남긴 채 KIA와 작별했다.

베테랑 야수들의 부진까지 겹치면서 타선의 집중력이 뚝 떨어진 KIA는 새로운

외국인 타자 터커로 폭발력을 더하겠다는 계산이다.

해즐베이커의 대체 외국인 선수로 낙점된 터커는 14일 자신의 새로운 홈이 될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 모습을 드러냈다. 52번 유니폼을 입은 그는 훈련 시간 전에 진행된 전체 미팅을 통해서 선수들에게 인사를 했다.

그리고 김기태 감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타격 훈련도 소화했다.

아직 KIA의 정식 선수는 아니다. 지난 13일 미디어 체크를 한 터커는 계약과 비자 발급이라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등투까지 며칠 시간이 필요하지만 마운드는 이미 그라운드에 있다. 터커는 선수단 휴식일이었던 13일에도 챔피언스필드에

서 타격 훈련을 하며 컨디션을 점검했다. 훈련을 지켜본 관계자들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스윙 스피드가 빠르고, 타구질이 좋다. 손목을 잘 활용해서 타격한다”가 첫 타격 훈련을 지켜본 이들의 평가다.

김기태 감독도 터커에 대해 “자신을 선택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더라”며 “맨손으로 타격을 한다고 하는데 손감각이 있는 것 같다. 파워 있는 선수라고 보고를 받았고, 스윙 스피드가 빨랐다”고 이야기했다.

또 “첫 날이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오버 페이스 하지 않도록 코칭스태프에게 당부했다”며 “출전할 때까지 선수단과 같이 움직이게 할 생각이다. 경기 감각적인 부분도 중요하니까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2군 경기 출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터커로 타격에 힘을 더한 KIA는 마운드에서는 패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 턴을 쉬고 지난 12일 선발로 복귀한 김기태 감독이 여전한 제구 약점을 노출하면서

지난 13일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김기태 감독은 김기태의 자리에 강이준을 투입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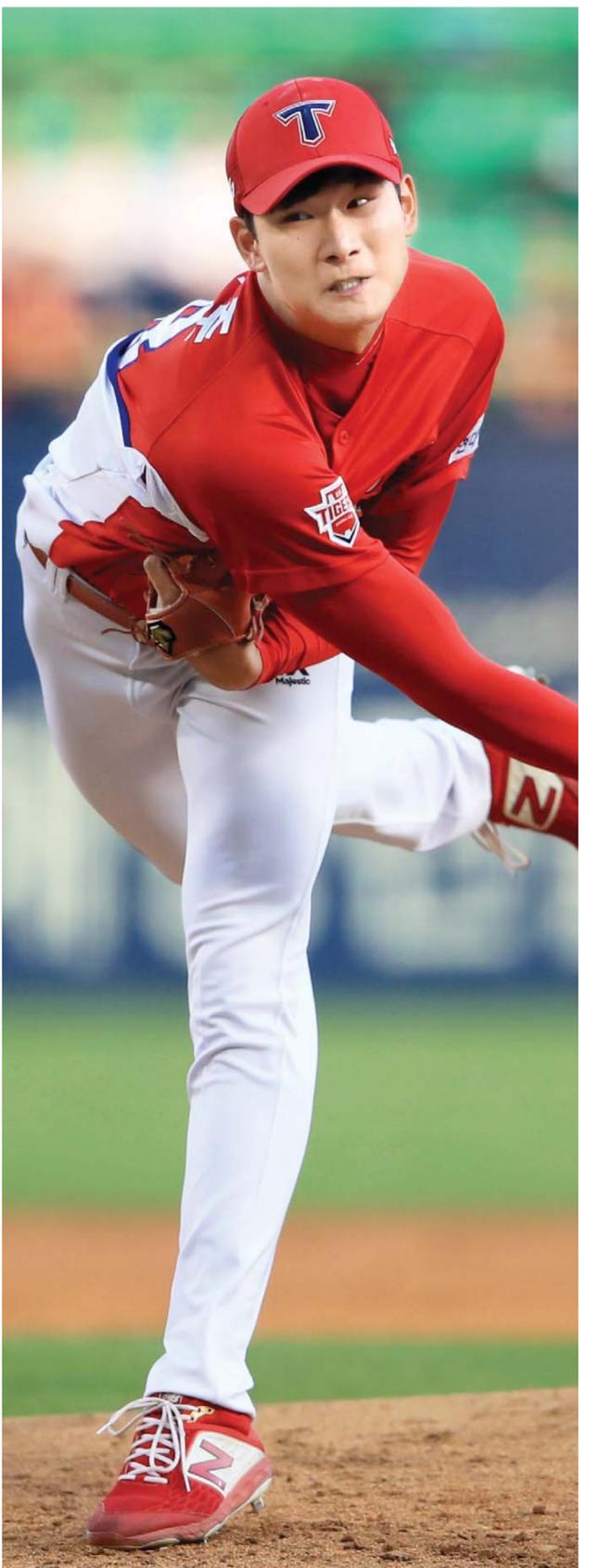
강이준은 지난 7일 잠실 두산전에서 선발로 나와 프로데뷔전을 치른 고졸 3년 차 투수다.

첫 등판에서 3.1이닝 3피안타 2볼넷 2탈삼진 2실점을 기록했지만, 두산의 까다로운 타자들을 상대로 자신 있는 피칭을 하면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김기태 감독은 “김기태가 지난 등판에서 제구와 킥 모션에서 좋지 못했다. 2군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다. 본인인 안 되는 부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며 “강이준이 대신 던질 것이다”고 언급했다.

강이준에 대해서는 “나쁜 쪽과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자면 좋게 봤다”며 “더 마운드에 나와서 싶었지만 팀 상황이 그렇지 못했다. 기본적인 멘탈이 좋고 던지는 모습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강이준의 배짱투를 기대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덕아웃 T 특특

▲나는 그게 아니었는데 = 홍건희의 말문을 막히게 한 후배 신범수였다. 홍건희와 신범수는 지난 10일 광주 SK전서 배터리로 호흡을 맞췄다.

신범수의 올 시즌 첫 스타팅. 하지만 신범수의 실수 연발로 경기가 어렵게 흘러가면서 두 사람이 마운드에서 잠시 조우하기도 했다. 홍건희는 “나는 호흡 편하게 맞춰보자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범수가 나를 보자마자 죄송하다고 하더라”며 지난 경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홍건희는 “사인이 안 맞은 건 아니었

### 한승택 “풀타임 뛰니 민식이 형 마음 이해돼요”

다. 범수는 경험이 없으니까 주자들이 많이 뛰려고 해서 나를 방어하려고 신경 쓴 건데 호흡이 안 맞았다”며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하려고 했는데 범수가 당황해서 죄송하다고 하니 할 말이 없어졌다”고 웃음을 터트렸다. 신범수는 “내가 너무 못해서 미안했다”고 다시 한번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민식이 형의 마음이 이해돼요 = 어깨가 무거운 ‘안방마님’ 한승택이다. 한승택은 올 시즌 매서워진 타격과 안정감 있는 수비로 KIA의 주전 포수로 활약하고 있

다. 투수들과 호흡을 맞추며 경기를 풀어가야 하는 막중한 자리, 선배라는 부담감도 크다. 지난 6일 김민식이 엔트리에서 말소되면서 한승택은 후배 신범수까지 이끌면서 안방을 지키고 있다. 한승택은 “선배라는 역할까지 해야 하니 부담이 있다. 민식이 형의 마음이 이해된다”며 “처음 풀타임을 뛰는 거라서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다. 예전과 달리 몸에 좋은 비타민 등을 챙겨 먹고 있다”고 웃었다.

▲새로운 마음으로 = 14일 KT 위즈와의 홈경기에 앞서 KIA 투수 야수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날 선수들은 ‘캠프 모드’로 PFP(Pitcher Fielding Practice) 훈련을 진행했다.

경기 상황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 투수와 야수가 함께 진행한 수비 훈련. 김기태 감독은 이에 대해 “대량 득점을 할 수 있을 때 못하거나, 주지 않아도 될 점수를 주고 있다”며 “쉽게 도루를 허용하기도 해서 견제, 킥모션 등을 연습하게 했다. 투수, 야수 함께 훈련을 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 FC, 수원 잡고 8강 간다

오늘 수원월드컵경기장서 FA컵 16강... 선수 체력관리 관건

‘유일무쌍’의 광주FC가 수원 삼성을 상대로 FA컵 8강에 도전한다.

광주는 15일 오후 7시 30분 수원월드컵경기장으로 건너가 수원과 2019 KEB 하나은행 FA컵 16강 원정 경기를 치른다.

수원으로 가는 광주의 발걸음이 가볍다. 광주는 지난 12일 2위 부산과의 정규리그 11라운드에서 극적인 1-1 무승부를 연출하면서 1위 자리를 지켰다. 11경기 연속

지지 않은 광주는 FA 경기까지 포함하면 1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

앞서 광주는 전남 드래곤즈와 안동과학대를 차례로 꺾고 FA컵 16강에 진출했다.

광주는 이번 경기에서 ‘실리 축구’를 할 전망이다.

부산과의 혈투를 치르는 등 치열한 승격 경쟁이 전개되면서 주전 선수들이 체력관리가 중요한 숙제로 주어졌다. 경기에 나

서지 못한 선수들의 실전 감각 조율도 필요하다.

로테이션이 가동된다고 해도 광주의 전력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광주는 올 시즌 두터워진 선수층을 바탕으로 치열한 내부경쟁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 여기에 출전 기회가 적었던 이들에게는 ‘어필 무대’가 되는 만큼 선수들의 의욕도 넘친다.

실제로 김주공과 정준원 등은 FA컵에서의 활약을 통해 리그 선발 기회를 얻었고, 팀의 무패행진에 힘을 보탤다.

‘강호’ 수원과의 경기를 통해 광주는 새로운 주전 구도를 구축할 수도 있다.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광주와 달리 수원은 FA컵 올인이 예고된다. 전북현대, 울산현대, FC서울 등이 FA컵 우승 레이스에서 탈락하면서 우승컵을 향한 도전에 힘이 실리게 됐기 때문이다.

수원은 앞선 정규리그 제주의와의 경기에서도 3-1로 이기며 5경기 만에 승리를 신고하는 등 선수단 분위기도 좋다.

K리그 레전드 대안과 염기훈을 비롯해 홍철, 사리치, 노동진 등 리그 탑 클래스 선수들도 견제하다.

광주는 선수들의 열정으로 수원의 노련함을 압도하겠다는 각오다. 로테이션을 통해 광주가 FA컵 승리와 함께 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동시에 이뤄낼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강이준